

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

【지역이슈분석 2012-25】

2012. 11. 22.

중국의 경영환경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전략

목 차

- I. 중국의 경영환경 변화와 영향 1
- II.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4

작성: 조사역 강수연 (3779-5716)
sykang@koreaexim.go.kr
확인: 수석연구원 김주영 (3779-5714)
jykim@koreaexim.go.kr



■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에 발맞춰 우리기업도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으로 중국 현지 기업 및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함.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경영환경을 간략히 서술하고, 이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함.

I. 중국의 경영환경 변화와 영향

□ 노동력 등 요소비용 상승과 수출기업에 대한 혜택 폐지

- (노동비용 상승) 중국은 소득 재분배, 내수경기 부양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음. 2011년 최저임금이 전국적으로 평균 22% 상승하였으며, 2015년까지 연평균 13%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.
- (수출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) 중국은 무역흑자 축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원 다소비 및 단순 노동집약적 업종의 수출 증치세 환급비율 축소 및 폐지, 가공무역 금지조치 등을 실시함.
 - 또한,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도 축소하여 2012년부터 외국인 기업과 중국 기업의 법인세율을 25%로 일원화함.
- (복지비용 증대) 중국정부가 2011년 7월부터 연금, 의료, 실업, 산재, 출산 휴가 등의 사회보험체계를 완비하고, 보험가입을 의무화함. 이어 10월 15일에는 중국 내 외국인 주재원 및 근로자도 보험가입 대상으로 포함시킴.
- (인력확보 곤란) 2006년 연해지역에서 시작된 농민공 부족현상은 2009년부터 본격화되고 있음. 노동력 부족의 주된 원인은 노동인구 감소, 낮은 임금과 신세대 농민공의 직업관 변화¹⁾ 등을 들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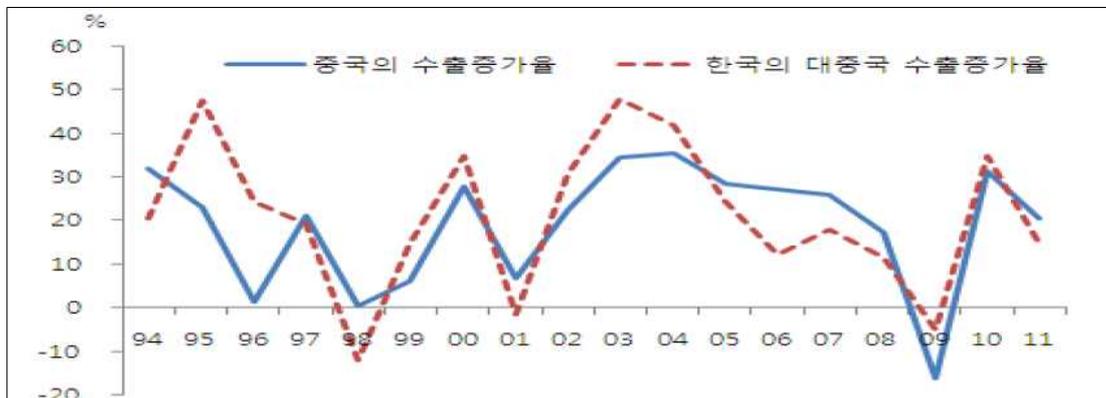
1) 신세대 농민공은 현재 18세~25세로 이들은 교육정도가 높고, 직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이 전세대 농민공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. 이들은 △직장생활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고, 급여 요구 수준이 높으며, 존중과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함. 또한, △생산직보다는 서비스직을 선호하며, △직업 교육을 통해 좀 더 나은 대우를 얻고자 하는 특징을 보임.



□ 저렴한 생산비를 목적으로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영 애로 증가

- 우리기업은 주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과 수출촉진 정책에 따른 각종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함.
 - 1992년 국교수립 이후 중국에 진출한 기업 대부분은 국내 임금과 지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들이며,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임.
- 그러나 2011년 대한상회가 중국에 진출한 2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, 응답 기업의 53.8%가 해당 기업의 경쟁력이 3년 내에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으며, 19.2%는 이미 경쟁력이 사라졌다고 응답함.
 - 기업의 42.1%가 임금인상 및 복리비 증대를 가장 큰 경영 애로요인으로 선택하였으며, 그 외에 중국 기업과의 경쟁심화(16.9%), 노동력 부족(11.5%), 원자재가 상승(11.2%) 등도 주된 압박 요인임.
- 또한,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2012년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로 중국의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음.
 -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구조는 중국에서 가공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비중이 약 67.2%를 차지하여 투자의 수출유발효과가 큼. 이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원부자재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수출도 감소함.

<그림1>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증가율과 중국의 전체 수출증가율 추이

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

□ 우리 기업들은 제3국 진출, 국내U턴, 사업철수 등으로 대응

- (제3국 진출) 대한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, 전체 응답기업의 18.5%만이 중국이 아시아 다른 나라보다 임금 경쟁력이 높다고 응답했으며, 나머지 81.5%는 동남아시아가 인건비 대비 효율성이 높다고 응답함.
 - 그러나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였던 동남아시아 지역의 임금도 2011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. 2011년 한 해 동안 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평균 10.6%의 임금상승을 경험함. 국가별로는 베트남 14.8%, 미얀마 14.5%, 방글라데시 12.3%, 파키스탄 11.5%, 인도네시아 11.2% 상승함.(KOTRA)
- (국내U턴) 또한 중국의 경영환경 변화로 미국, 대만²⁾등이 자국내 U턴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도 중국 진출기업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마련하고 있음.
 - 지식경제부의 U턴 지원 확대방안(12. 4)³⁾에 따르면, 중국에 진출한 기업 240개사 중 12.5%(30개사)가 한국 U턴을 고려하고 있으며, 실제 한국으로 U턴한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 외에도 노무관리 악화, 해외 바이어의 한국제품 선호, FTA관세 혜택 등을 이유로 한국 복귀를 결심함.
 - 이에 정부는 국내에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에게도 세제, 입지, 인력 등의 혜택을 마련하였으며, 올해 8월 보석가공 및 판매업체 14곳이 전북 익산으로 돌아옴.
- (사업철수) 비용압박으로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하는 경우, 기업은 사업철수를 고려하게 됨. 특히 중국에는 지방정부의 소극적 자세와 복잡한 절차로 청산완료까지 최대 2~ 3년이 걸리고, 영업연수가 10년 미만인 기업은 청산 시 세제상 받은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으로 정상적인 청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.

2) (미국) 이전비용의 20% 보조, 복귀를 위한 투자비용에 조세감면 추진하여 5년간 법인세 감면 (대만) U턴 투자전용 융자지원, U턴 투자기업의 기술향상 지원

3)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방안(비상경제대책회의, 12.4)에 따른 세부계획으로, △U턴시 중요한 장애요인인 입지·인력·세제 분야 지원 강화, △지역균형발전을 고려, 비수도권 복귀기업에 한정하여 “수도권 지방이전 기업”에 준하여 지원, △특정 업종의 다수 기업이 “집단지 U턴”시, 해당업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혜택도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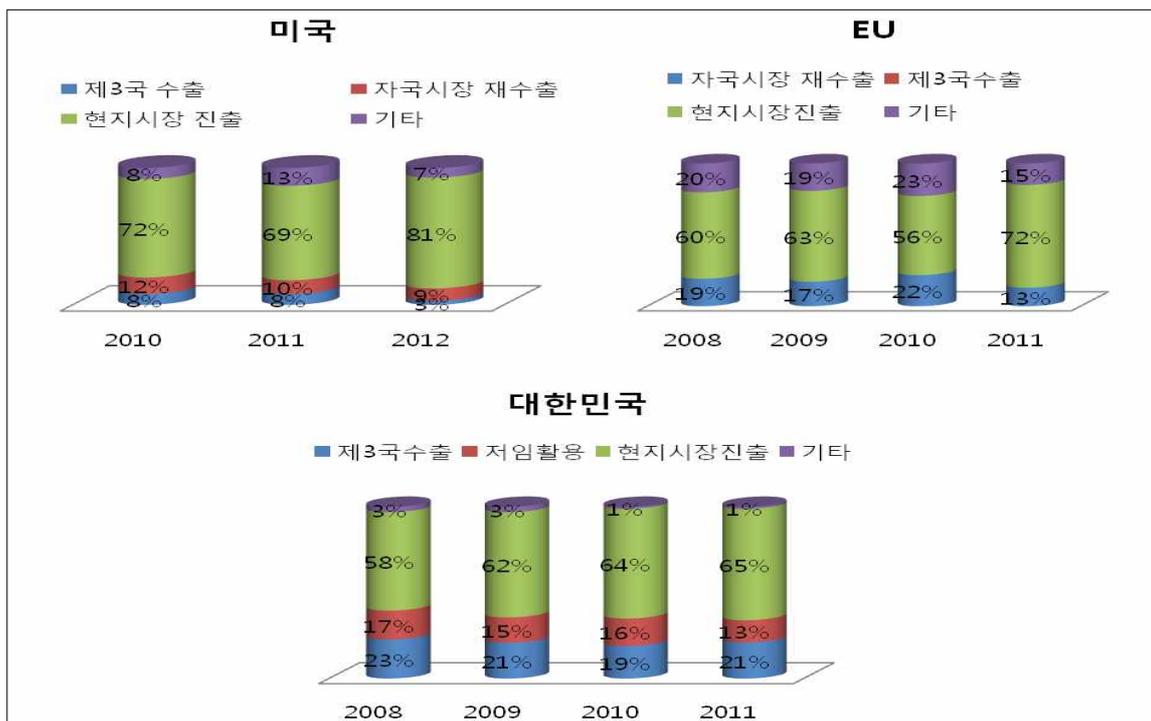
-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내수 확대를 추진한 2007년,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한 청도지역에서 공예품, 의류, 피혁 부문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 중심으로 신규투자 기업의 14.3%에 달하는 87개 기업이 철수를 단행함. 철수와 폐업으로 2007년 말 6,000개 이상이던 청도지역 한국기업이 2012년 2,000여 개로 급감함.

II.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

□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인과 현지기업으로 영업대상 확대

- o 우리나라의 중국 투자는 제3국 수출을 위한 가공무역 중심으로 중국 현지인 및 현지기업에 대한 영업력이 저조함.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함.
- 전기전자, 정밀기기, 수송 장비 등 부품이 수출 및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만 주요 고객은 한국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(75%)임(산업연구원).

<그림 2> 미국, EU, 한국기업의 진출 목적



자료: EU Chamber of Commerce in China, US Chamber of Commerce in China, 한국수출입은행



- 서비스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문 기업의 34.2%만이 중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민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응답함.(대한상의)
- 그러나 고객별 매출에 대한 질문에서 중국인 고객이 80%이상인 경우 ‘최근 매출이 30%이상 증가했다’는 응답이 62.8%에 달한 데 반해 중국인 고객이 20%미만인 경우는 37.2%에 그쳐 중국인 고객이 많을수록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.

□ 임금 인상과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여 설비 자동화 추진

-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체의 경우, 업종 변경, 내수 진출을 위한 판로 개척 등의 대응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. 이에 따라 임금 상승, 노동력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설비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.
- 실제로 중국은 산업용 로봇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의 하나로, 현재 중국 공장의 로봇은 대부분이 일본이나 유럽, 북미 등에서 수입되고 있음.(산업연구원, 국제로봇연맹)
- 2010년까지 산업용 로봇의 누적 설치 대수는 3만 7,312대로, 자동화 분야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50%, 고무 및 플라스틱 15%, 전자부품 16%, 금속 및 기계 부품 15%, 식품 및 식료품 3%, 제약 및 화장품 1%임.
-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의 노동자 1만명당 로봇대수는 21대로, 한국 347대, 일본 339대, 독일 261대에 비해 크게 부족함. (국제로봇연맹)

□ 정부정책에 따른 중서부 지역 투자유치와 세제혜택 활용 방안 마련

- 중국 정부는 서부 개발을 위해 2050년까지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, 1차 목표 기간(2000~2010) 동안의 개발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현재 2기 목표(2011~2030)를 추진 중에 있음.
- 중국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 감면, 토지사용세 면제 등의 각종 우대정책을 제공하고 있음.



-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중·서부 진출도 확대되고 있음. 2012년 9월 삼성전자가 산시성 시안시에서 반도체 생산 공장 기공식을 했으며, 이에 앞서 현대자동차도 8월 사천성 자양시에서 사천현대차 공장을 착공함.
- 향후 중국 진출을 고려할 경우는 중·서부 거점 도시인 청두시, 시안시 등을 중심으로 시장 개척할 필요가 있음.

□ 서비스업에서는 틈새시장 공략

- 2011년 중국에 대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중 관광, 운송, 보험, 정보서비스, 컨설팅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금액이 2008년부터 제조업을 넘어섰고, 2011년에는 52.8%를 기록함.
- 서비스 부문의 수익성도 제조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. 중국 진출 다국적 기업의 생산성 개선 전략을 조사한 Ernst&Young의 보고서⁴⁾에 따르면,
 - 설문 기업 중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14%가 20%이상의 영업 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, 제조업 종사기업은 7%만이 20%이상의 영업 이익률을 보임.
 - 또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18%만이 2년 전에 비해 수익성이 개선된 반면, 도·소매업의 53%, 소비재의 50%가 2년 전에 비해 수익성이 개선됨.
- 우리기업의 중국 현지법인의 경우도 2010년 제조업종은 3.3%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반면, 서비스업은 5.8%의 이익률을 기록하였으며, 특히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12.5%의 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서비스업종의 이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.
- 중국은 아직까지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규제가 많지만 한중 FTA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부문 개방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.

4) "Rethinking profitable growth: the productivity imperative for foreign multinationals in China"(Ernst&Young, 12.1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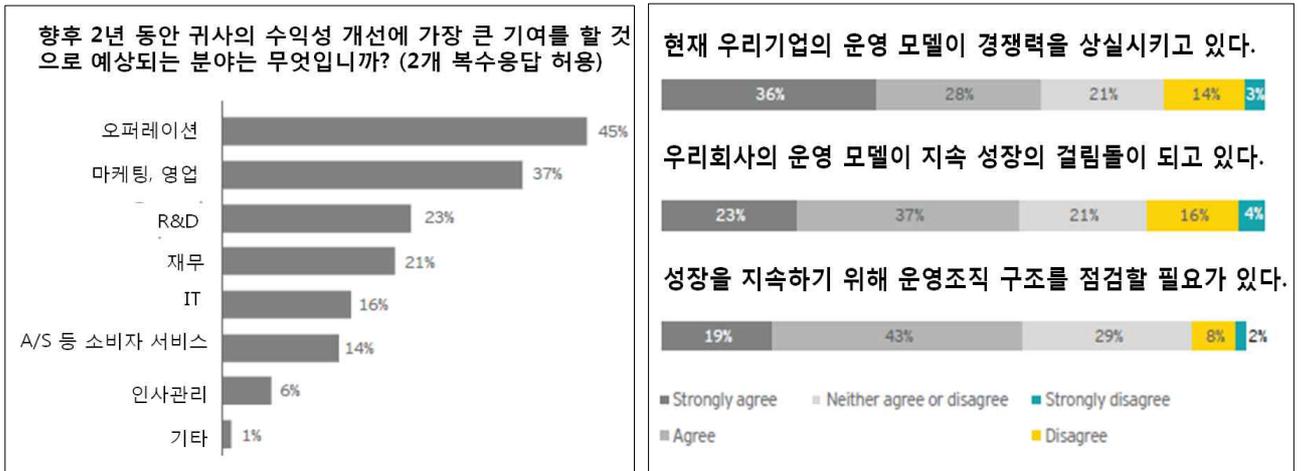
- 감소세를 보이던 홍콩의 대중국 투자가 중·홍콩 FTA(CEPA)로 서비스 개방이 본격화된 2005년 이후, 급속한 증가세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우리도 서비스업 개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.
- o 이에 따라 기 진출 분야 외에 선진 다국적 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을 수 있는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함.
- 2012년 6월까지 서비스업에 진출한 기업은 운송물류(한진해운, 금호고속), 기업 서비스(제일기획, 태평양), 교육(대교, 한솔교육, 재능교육, YBM시사), 의료(한국우리들병원, 함소아 한의원), 영화(CJ CGV), 게임(네오위즈 게임, 컴투스) 등임.

□ 생산성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R&D투자, 구조조정 등이 필요

- o 가파른 임금상승에도 중국시장은 여전히 국내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음. 향후 중국 내 투자계획에 대해 현재 수준으로 유지(58%)와 투자 확대(28.3%)가 다수를 차지했으며, 사업축소(8.2%), 제3국 이전(8.2%)은 소수에 불과함. (대한상의)
- 철수하지 않고 중국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‘생산성을 높여 임금인상에 대응’(36.6%)이 가장 많았으며, ‘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사업모델 전환’(19.2%), ‘임금이 저렴한 내륙도시로 이전’(7.5%) 등으로 응답함.
- o Ernst&Young에 따르면, 중국 진출 기업들은 주로 오퍼레이션으로 대표되는 내부 비효율 개선(45%)을 수익성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음.
- 그 외에 마케팅·영업(37%), R&D(23%), 재무(21%), IT(16%) 등의 분야에서 생산성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기업도 구조조정, 인력 재배치, R&D투자 강화, IT 인프라 확충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.
- o 특히 중국이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국유기업 지배구조 다변화, 경쟁요소 도입 등을 추진함에 따라 생산성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.



<그림 3>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



자료: Ernst&Young, EIU

□ 중국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정보 확보가 필수

- 2012년 9월 대한상회가 국내 40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, 이들 기업이 국제화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'시장정보 부족'(35.3%)임.
- 그 외 장애요인은 전문 인력부족(20.9%), 자금 부족(17.1%), 현지 법·제도 규제(15.4%), 낮은 기업·제품 인지도(13.8%), 제품경쟁력 부족(11.8%), 판매채널 부재(10.2%) 등임.
- 중국은 영토가 광활하고 지역마다 문화가 달라 진출 고려지역에 대한 물류, 상관습, 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, 진출 전 엄밀한 분석이 필요함.

문의: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
 조사역 강수연 (3779-5716)
 sykang@koreaexim.go.kr